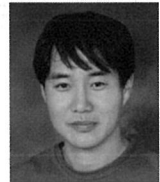




사람과 동물 치료의 차이 아닌 차이

최종욱
광주광역시 우치공원관리사업소
수의사/동물결핵니스트
lovenal@hanmail.net



타이완원숭이 한 마리가 있다. 그 녀석은 일반 가정에서 키우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집에서 탈출하게 되어 119 구조대에 의해 잡혀온 것이다.

오랫동안 인간과 더불어 산 탓인지 성격은 무척 얌전하여 이빨을 들어 위협하다가도 가까이 가면 고개를 푹 수그리고 얌전해진다. 보통 인간과 공존이 가능한 일본, 타이완, 히말라야, 돼지꼬리(일명 야자) 원숭이들이 대개 이런 양극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전문가 이외에 초짜들이 가까이 가면 이들은 눈빛만 보고도 대변에 초보자인지 알아보고 공격(무는 것)할 수도 있으니 초심자는 늘 조심해야 한다.

이 타이완원숭이에게는 지병이 한 가지 있다. 잇몸에서 자꾸 이상한 버섯 같은 조직들이 길어져 1년 정도면 잇몸 전체를 덮어 버린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거 수술을 해 주어야 한다. 수술은 일단 마취를 시킨 후, 길어진 조직의 기단을 묶거나 잘라내는 방법으로 행하며 비교적 간단하고 예후도 좋다. 그리고 또 1년 동안은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

이번에 조직검사를 해 보았더니 '섬유치은종'으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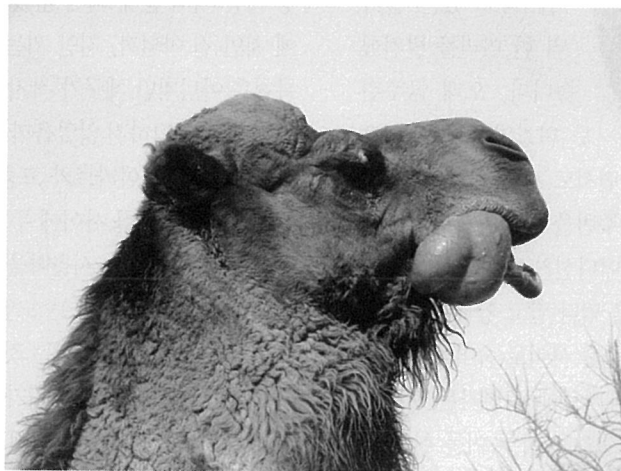


양성종양의 일종으로 개나 사람에게도 흔하다고 알려져 있다. 원인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사료 같은 너무 편식화 된 식단에 기인하는 것 같다.

동물들에겐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는 것도 아니고 진단과 치료가 비교적 쉬우니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질환에 속하지만, 만일 사람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아주 달라져 버린다.

지금처럼 외관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입안에서 무언가 자라나고 있고 일 년을 주기로 입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라면 사람에게엔 보통 심각한 질병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일종의 진행성 암이니 완치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평생 이 보기 싫은 질환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건데, 아마도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조금만 자라도 잘라내는 것 또한 문제다. 나도 치료해 보았지만 '암'이란 것이 암전히 다스려야지 심하게 다루었다간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이 원숭이의 경우도 혈관을 차단하여 조직을 질식사시켜 말라 떨어지도록 하는 방법과 바로 잘라내는 방법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첫째 방법은 2~3일 정도의 시간은 요하지만 수술시 전혀 출혈이 없고 회복이 빠르며 술자도 편하고 환자도 거의 부작용



증거일 것이다.

흔히 의학의 발달이 생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지만 개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수명은 예전과 크게 변한 게 없고 오히려 치료하기 힘든 신종질환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전 세계인구의 절반정도가 항상 무엇인가 질병을 달고 다닐 날이 머지않아 찾아 올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장애를 가진 조금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그 분들을 자꾸 정상인과 분리시키려는 것은 인간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다.

작은 장애를 가진 원숭이를 동료들이 아무 사심 없이 대하듯 그렇게 우리사회도 불편한 사람들을 편안하게 바라봐주고 모든 사회시설이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잠재적인 '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fin~